

※ 최근 對 아프리카 지역 수출 촉진을 위해 일본무역보험(NEXI)의 보험정책 개정 방침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는 바, 관련 내용을 정리한 자료임

## **NEXI, 아프리카 특화 무역보험 상품화 추진**

(2015. 1. )

동경사무소

- (개 요) 일본무역보험(NEXI)은 아프리카 전용 투융자에 특화된 무역보험을 상품화할 예정으로 지정학적 사고 발생시 전액을 보상할 방침

\* 자료원 : '14. 12. 23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전자판 뉴스

- (추진목적) 일본의 주요 유망수출시장인 아프리카지역 앞 수출 및 해외투자 등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보험기능 강화

- 일본 정부는 현재 중국과 서방국가들이 아프리카 내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일본계 기업의 투자가 정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무역보험 전액 보상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아프리카 내 투자 촉진을 유도할 목적

- (주요내용) 일본계 기업 및 금융기관의 아프리카 전용 투융자에 대해 향후 5년간 지정화리스크를 100% 보장함으로써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도모

- 통상적으로 NEXI의 지정화리스크에 대한 보상률은 95~97.5% 수준이나, 아프리카에 한해서 동 보상률을 100%로 상향할 예정

- 또한, NEXI는 이례적으로 타국의 투자 동향도 감안해 가면서 2015년부터 향후 5년간을 아프리카 집중투자 기간으로 설정해 일본계 기업 및 금융기관을 지원할 예정임
- 아프리카 내 자원개발과 인프라정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NEXI는 지난해 6월 20억달러의 아프리카 전용 무역보험 한도를 설정한 바 있으나 이후 보험인수 건수는 4건 (1,200억엔)에 불과하여 금번 추가 지원책을 준비한 것으로 보임

#### 니혼게이자이신문 전자판 관련 뉴스 원문 ('14.12.23자)

##### アフリカ特化の貿易保険 NEXI、全額補償

日本貿易保険（NEXI）は2015年から、アフリカ向けの投融資に特化した貿易保険を商品化する。テロや政情不安などで資金回収が困難になった場合に全額を補償する。アフリカには中国や欧米諸国が投資を加速する一方、日本企業は地政学リスクを懸念して足踏みしている。全額補償をきっかけに、アフリカへの投資を促す。

対象はアフリカ諸国における企業や金融機関の投融資で、来年1月1日から5年間販売する。地政学リスクへの補償率は95～97.5%だったが、アフリカに限って100%に引き上げる。

アフリカでは資源開発や電力などインフラ整備の需要が高まっている。NEXIも昨年6月に20億ドル（2000億円超）のアフリカ向け貿易保険枠を設定したが、引受件数は4件、金額で1200億円にとどまる。特定の地域を優遇するのは異例だが、他国の投資動向も踏まえ、今後5年間で集中投資期間として日本企業を後押しする。